

# 북한의 외자 유치 현황과 특성

한종백 / KOTRA 북한실 조사부장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지지부진한 외국 자본의 유치 속에서 그간 제한적이거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은 사회주의체제 방어(socialist system defense)의 틀 안에서 소위 '수동적인 개방 정책(Passive Policy Toward Foreign Investment)'<sup>1)</sup>으로 인해 그 폭이 매우 제한되어왔다. 또한 그간 북한의 외자 유치 및 대외 개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이 퇴진하고, 대북 협력 사업으로 명망 높았던 재미 인사들이 북한내 억류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대북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 및 회의감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로 김정일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개정된 헌법 상에는 개인 소유 범위 확대, 경제 관리 운용에서의 자율성 확대, 재산성 원칙의 중시, 대외 경제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실리를 추구하는 대외 정책의 추진과 함께 투자를 비롯한 외국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 북미제네바합의 이후 외국인 투자 나진·선봉지대로 선화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4년 말까지 북한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는 전자, 기계, 화학, 의류, 식품, 광산 등 각 분야에 걸쳐 148 건으로 알려졌으나, 이 가운데 88.5%에 달하는 131 건이 조총련계 일본 기업에 의한 투자로서 소위 '朝朝 합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1986년까지는 백화점, 커피숍, 호텔, 수리 공장 등 서비스 분야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987년부터 섬유, 피복 등 경공업·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후 1989년부터는 금융, 기계 제작, 전기·전자 등의 부문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다.<sup>2)</sup>

그러나 조총련계 합작 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① 제일 조총련계의 취약한

1) 윤상직(1997), "Critical Issues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s of North Korea for Foreign Investors," *Wisconsin Int'l Law Journal*.

자금 사정 및 신용 상의 문제로 인한 소액 투자가 대부분으로 실제 북한 경제 발전 기여도가 낮고, ②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중점 유치 희망 업종인 중화학 공업,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이 의류 부문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라는 점이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출의 계기는 1994년 북미간제네바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이후, 미국·유럽의 서방국들이 이 지대를 중심으로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활기를 띠게 되자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그간 제일 조총련 기업들이 평양·남포·사리원·원산을 중심으로 진출한 데 반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유치로 선회하게 되었다.<sup>3)</sup>

### 아직 인프라 건설이 주된 투자 대상, 제조업 미미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7년 12월말 현재 나진·선봉지대내 외국인 투자 계약 체결 실적은 111 건에 7억 5,077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실행된 금액은 77 건에 5,792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합영 46 건, 합작 14 건, 단독 17 건 등이다. 이 규모는 얼마 전까지 발표된 투자 실행 금액 3,200만 달러의 거의 2 배에 이르는 것인데, 국별로는 홍콩, 중국, 태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순이다.

주요 투자 실적 가운데 홍콩 앰퍼리그룹의 호텔 건설, 태국 록슬리社에 의한 통신 인프라 건설, 홍콩 자본에 의한 도로 포장 사업 등과 같은 대형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은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진·선봉지대 내의 외국인 투자 상의 특징은 서비스, 도로 건설, 통신 시설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고 제조·가공업에 대한 투자는 금액상 매우 미미한 실적에 불과한데, 이는 아직까지 지대를 비롯한 북한의 투자 여건이 생산·가공·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지난 9월 24~26일중 나진·선봉시에서 개최되었던 '나진·선봉지대투자상담회'(Rajin-Sonbong Zone Investment Discussion)에서는 네덜란드 Wartislia社가 선봉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BOT 방식(Build-Operate-Transfer)으로 6,700만

2) '朝鮮 合營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는 모란봉합영회사(가성복, 점퍼, 와이셔츠, 블라우스 생산: 평양), 만경대신발합영회사(가죽 신발: 평양), 평양피아노합영회사(피아노: 평양), 국제화학합영회사(이트리움 등 희토류: 함흥) 등을 꼽을 수 있다(KOTRA(1995), 「북한 투자 실무」).

3) 대우의 남포합영공장(1995년 5월 통일부 사업 승인, 남포),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생산(1997년 11월 사업 승인, 평양 통일구역),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1998년 9월 7일 사업 승인) 등에서와 같이 지대외 투자가 배제된 것은 아니다.

달러를 투자(총투자 금액은 8,700만 달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홍콩의 엠페리그룹·태국 록슬리사와 함께 지대내 주요 투자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1996년에 도요엔지니어링 등이 주도하여 나진·선봉지대를 가시마공단과 같

은 중화학공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같은 소삼각지의 러시아 영내인 자루비노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나진·선봉항 개발과 경합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sup>4)</sup>

**<표 1> 나진·선봉지대내 분야별 외국인 투자 현황**

분야	구분	기업명	투자 내용
SOC	도로	타이슨社 (홍콩)	· 1996년중 나진·선봉간 주요 간선 도로 포장 완료 · 선봉-원정간 도로 확장·포장 사업은 1997년 10월중 완료 예정 · 7,220만 8,000 달러
	나진시헬리포트	신동북아(주) (홍콩)	· 1996년 6월 이착륙장 공사 완공 · 1997년중 부속 건물 공사 완공후 영국 기업과 합영으로 연결·나진간 헬기 정기편 취항 예정
	부포리비행장	플아이티씨(홍콩)	· 1997년중 합영 회사 설립 예정
	항만	현통집단 (중국, 연변)	· 나진항 · 110 톤급 이동식 크레인 설치, 1997년중 36 톤급 크레인 설치 예정
		신동북아(주)(홍콩)	· 나진항 시멘트 저장 시설
		러시아 컨소시엄	· 나진항 3호 부두 설비 개선
		조총련계	· 나진항 1호 부두 비료 증계 창고 건설(1994년 완료) (200만 달러 투자)
		鮮虎기업집단 (연변)	· 50년간 청진동항 임차 계약 체결 · 청진-회령간 도로 확장 공사 · 총 3,400만 달러 투자 계획(현재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
	철도	해치슨그룹(홍콩)	· 나진항, 확대 건설 협의중 → 청진 방향으로 4~12호 부두까지
		러시아 컨소시엄	· 나진-두만강구 철도 개선
	통신	록슬리社 (태국)	· 1996년 4월 조선체신회사와 동북아전신회사(주) 설립 (30년간 체신 사업 독점권) → 초기 투자 계약액: 2,700만 달러 · 1996년 5,000 회선 설치 완료, 전화 카드로 장거리·국제 전화 가능(1,300만 달러 투자 완료) · 1997년중 지대내 지선 확장 및 이동식 전화 실현 예정
	전력	스탠턴그룹 (미국)	· 선봉중유발전소 발전 설비 개선(추진중) · 1995년, 북한과 '조선설비-스탠턴개발회사' 합영 기업 설립(발전 능력 20만 kW → 40만 kW)
		와셀라(네덜란드)	· BOT 방식 선봉발전소 설비 투자(총 8,700만 달러)

4) 최근 「블라디보스톡」지의 보도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일본대표단이 연해주를 방문, 두만강 인근 자루비노항 개발을 위한 합의서에 1998년 10월 1일 서명하고, 일본수출입은행은 1999년 초에 동항만 설비 확장을 위해 총 2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의 出海口를 미리 장악함으로써 동북아 주요 물류 기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있

분야	구분	기업명	투자 내용
제조업	음료	신동복아(주) (홍콩)	· 주류·정량 음료 생산 공장 건설중: 최초의 100% 단독 투자 → 1단계로 200만 달러 투자
		Back Stage Inc. (재미교포)	· 신덕산생물 개발 추진 · 현재 중단 상태
	원유 가공	스탠턴그룹 (미국)	· '설비·스탠턴개발회사' 설립 · 승리화학공장(연간 200만 톤 원유 정제 능력) 확장(추진) · 1996년 9월, 파이로트 원유정제소 건설 계약(美 정부 승인) → 투자액 1,300만 달러 ※ KEDO 계획 일환으로 중유 공급 비용 감축 목표 · 향후 2~3 배 확장 계획, 10억 달러 투자 계획
		로알더치셀 (영국, 네덜란드)	· 선봉항 근처 웅수리에 1.7 ha 토지 50년간 임차(진행중) · 원유 저장·공급 시설 건설(진행중) → 투자액 1,000만 달러
	수산물 가공	수재봉수출합작 회사(조총련)	· 수산물 생산, 가공, 수출 → 120만 달러 투자
관광 서비스	호텔	타이슨社(홍콩)	· 나진국제호텔(1996년 9월 개장, 106 실) → 투자액 250만 달러
		엠펜러그룹 (홍콩)	· 5성급 호텔 건설(비파지구) → 총 1억 8,000만 달러 투자 · 1997년 2월 기공식 거행, 1단계 5,000만 달러 투자하여 1997년 말까지 객실 100개, 200명 수용 규모 호텔 건설 · 공사 진행 부진했으나 최근 공사 재개로 금년말 완공 예상
	관광 숙소	만경봉종합개발 (주)(조총련)	· 비파관광숙소(방갈로) 건설(600 실)(1996년 완료) · 302만 달러 투자 계약, 252만 달러 투자
	관광 시설	현통그룹 (중국, 연변)	· 300만 달러 투자 예정(미정)
		중국 조선족	· 1997년 7월 오락 및 편의 시설(나진국제구락부) 건설중 · 1999년 완공 목표
	병원	미국기독교재단	· 나진인민병원 건설중 → 650만 달러 투자 계약
		김만유병원(일본)	· 4,000만 달러 투자
		재미경제인연합회 (재미교포)	· 대경추와 합영으로 '나진산업센타개발운영회사' 설립 (진행중) → 투자액 1,000만 달러
택시 영업	웅흥집단공사(연변)	· 조선나진웅흥집단회사 설립(1995년 5월) → 등록 자본 220만 달러	
금융	은행	ING은행 (네덜란드)	· 1996년 4월 조선국제보험회사와 합영 은행 설립(지분 70%) → 초기 자본금 200만 달러(ING 140만 달러) · 1997년부터 나진·선봉지역 영업 개시 · 투자액 3,000만 달러 계획
		페레그린투자 (홍콩)	· 1996년초 대성은행과 합영 은행(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 설립(지분 70%) → 초기 투자 750만 달러 · 1997년부터 나진·선봉시대 영업 개시 · 투자액 1,500만 달러
		엠펜러그룹 (홍콩)	· 1996년 9월 나진·선봉투자포럼시 계약 · 3,000만 달러 투자 계획

## 남북간 협력 사업은 복합적 요인으로 다양하게 추진

남한의 대북 투자는 (주)대우가 512만 달러를 투자하여 1996년 8월부터 남포 지역에서 셔츠·블라우스·가방·재킷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그간 유일한 사례였으나, 금년 들어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영농조합 등 농업 분야와 미홍식품산업사의 수산물 가공, 금강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경제 여건의 어려움과 주변국 경기의 침체에 따라 남북간 협력 사업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나

제조업 분야의 투자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북한간 투자 사업 추진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對북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모색을 통한 화해 기반 조성 등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 교역·임가공을 거쳐 직접 투자 단계를 경험의 최종적인 완숙 단계로 볼 때, 남북간에는 교역에서도 아직 당사간 직접 계약이 불가능하고 임가공의 경우도 기술자의 상주나 설비 투자를 동반한 심화된 가공 생산에는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음에

〈표 2〉 경제 분야에서의 대북 '협력 사업' 승인 현황(1998년 10월 31일 현재)

기업	사업 내용	금액	승인일
대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재킷 생산	512만 달러	1995. 5.17
태창	금강산 샘물 개발	580만 달러	1997. 5.22
한국통신	경수로 관련 통신 지원 사업	-	1997. 8.1
한전	경수로 관련 초기 부지 정지(PWC)	4,500만 달러	1997. 8.16
한국외환은행	경수로 부지내 은행 점포 개설	-	1997. 11.6
녹십자	혈전증치료제 제조	311만 달러	1997. 11.14
아자커뮤니케이션	인쇄·광고·홍보용 영상물 제작	편당 25만 달러	1998. 2.18
미홍식품산업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47만 달러	1998. 3.13
국제옥수수재단	신품종 옥수수 개발, 공동 농업 연구	220만 달러	1998. 6.18
두레마을영농조합	농산물 생산·가공·수출	200만 달러	1998. 7.27
태영수산/LG상사	가리비 양식 생산 및 부대 사업	65만 달러	1998. 8.28
코리아랜드	북한 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	60만 달러	1998. 8.28
(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금강산 관광 산업(금강산 관광, 관광선 운항, 관광 개발 및 편의 시설 설치·운영,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9,586.6만 달러	1998. 9.7
백산산업	버섯 및 버섯배지 생산·수출	81만 82 달러	1998. 10.28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따라,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진출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 투자 유치 및 진출은 지구화(globalization)시대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 북한의 투자 여건상 특징

짧은 기간내 법규의 대량 제정, 구체성 결여 보완 필요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북한의 외국 투자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은 지금까지 총 56 개에 이르며 주식회사법, 금융법, 보세가공구법 등 3 개는 곧 제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방 투자자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 투자법체계상 문제점으로 크게 ① 외국 투자에 대한 수동적 자세(passive policy toward foreign investment), ② 법 설계상의 미비성(underdeveloped legal drafting), ③ 불완전한 법적 구조(incomplete legal structure) 등을 들 수 있다.<sup>5)</sup> 즉,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필요한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취하지 않고 체제 방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업으

로서 우선 고려 대상인 내수 시장을 감안한 투자 계획 수립이 거의 불가능하고, 나진·선봉지대와 북한 영내의 투자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완전 통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법」(1992) 상에서는 국유화 및 재산 몰수를 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원칙을 강제할 수 있고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하위법이나 시행령이 없고, 상기밀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기밀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이 없는 등 원칙의 법적 선언은 있으나 후속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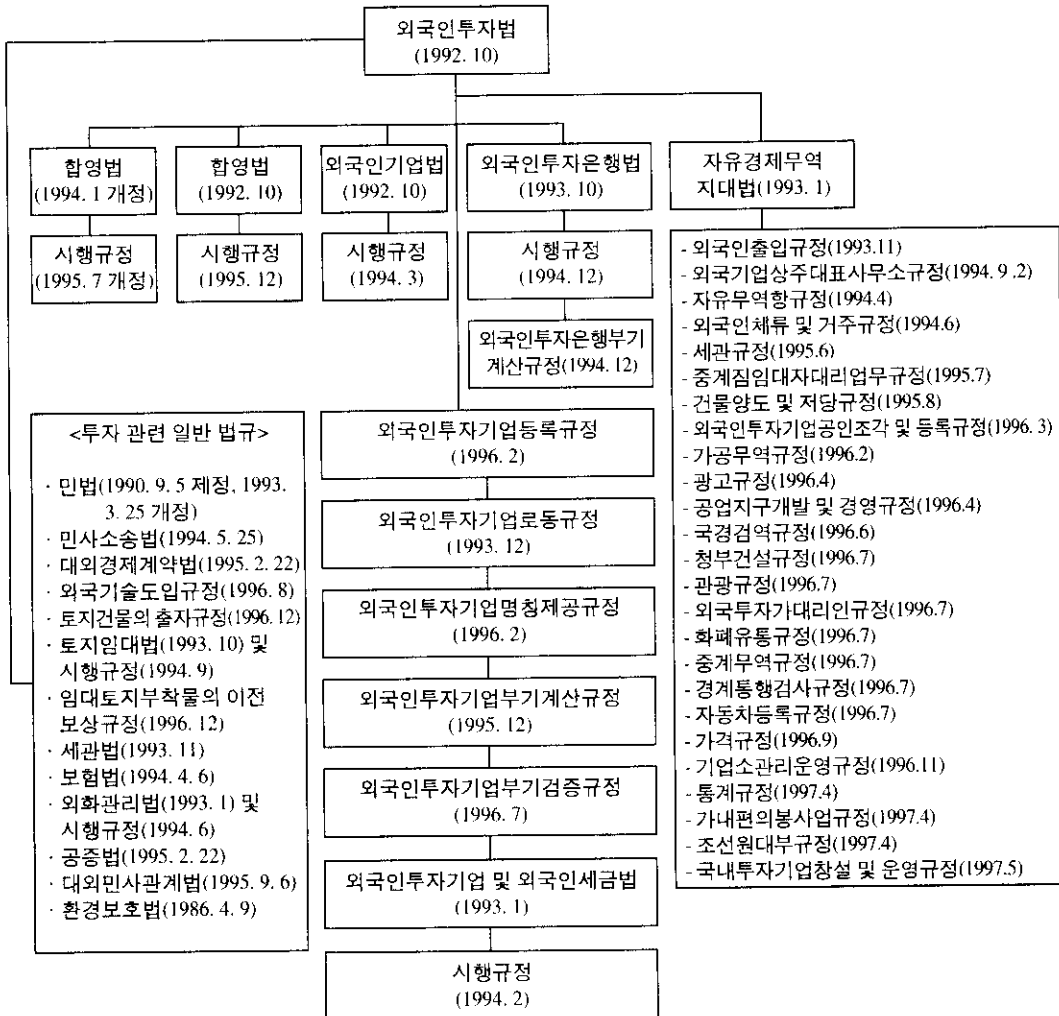
아울러 사회주의상법은 있으나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법이나 기업법이 없음으로 인해, 계약이나 기업의 법률적 행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룰이 없음도 큰 제약으로 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현재 제정된 50여 개 투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향후로는 약 100 개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는 사실상 관련법 제정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투자시의 법적 위험 부담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윤상직, 前掲書

아시아 경제 위기가 북한의 인프라 개선 사업에  
 악영향 우려  
 북한 당국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

지대 개발 사업에서 지대의 하부 구조 대상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데 중점을 두어왔으  
 며, 특히 통신·교통 부문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협력 아래 많은 성과가 이룩되어 실천

〈표 3〉 북한의 투자 관련 법체제도



자료: 신웅식·안성조 공개(1998. 8),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하위 규정들의 명칭 앞에는 모두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생략되어 있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신보」는 보도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북한 내의 인프라 미비는 북한 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듯 하며 나선지대 개발 초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최근에는 통신 인프라 개선에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금년 5월초 나선지대를 방문한 미주 한인 실업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서도 북한의 지대 당국자들은 ‘주체 1987년’인 1998년이 나진·선봉 개발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7월에 통신센터를 착공, 올해 내로 이 지역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한편, 철도 개발·도로 건설 등 하부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7)</sup>

북한은 남포·원산을 보세 가공 구역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능한 한 나진·선봉지대 내로 유인하고 있음에 따라, 지대의 인프라 개선 여부는 북한으로서 외국인 투자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전망된다. 이것은 외국 기업들의 자금 동원력과 직결되는데, 나진·선봉지대내 투자 기업들이 대부분 홍콩, 태국, 중국 등 동남아 기업들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아시아 경제 위기와 관련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합작 생산시 주요 대상 시장은 러시아·중국·일본

북한 내부에서 제조된 제품의 판매는 ① 북한 내수예의 유통, ② 남한으로의 반입, ③ 제3국으로의 수출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북한 내수를 겨냥한 현지 투자가 어려운 점은 내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생필품을 중심으로 장마당 등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수익성을 겨냥한 대량유통체제 구축이 사실상 어려운 점, 북한 원의 불태환성 등이 현재로서는 내수를 겨냥한 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는 계약 재배나 공동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확분을 배분하거나 북한의 외환 부족을 감안하여 투자 이익의 분배를 환금성 현물(예: 금속 광물 제품)로 상환받는 방법 등이 가능할 수 있다. 현지 생산품의 남한으로의 반입은 남한 내수 시장에서 흡수 가능한 품목으로서 북한 내의 저렴한 임금외에도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로서 제3국으로의 수출시 주요 시장은 러시아·중국·일본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이후의 진출 시장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sup>8)</sup>

6) 「한겨레신문」(1998. 8.6).

7) 나진·선봉지대를 10월초 방문한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아직까지 핸드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체제 유지 문제가 방어적 투자 정책 고수를 지속화

북한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진·선봉지대 내의 투자 환경이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 북한내 내수 시장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북한측의 방어적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외자의 유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 또 북한 투자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국제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혼 사업이기도 한 나진·선봉지대의 개발과 외국 자본 유치를 향후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향은 있으나, 국내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대외 개방이 가져올 수도 있는 사회주의체제 유지 상의 문제점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방어적 투자 유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북한내 관광 산업 개발 붐,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등은 순수한 경제성 추구만을 위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경험 확대의 여건 조성이라는 점에서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외국 기업의 본격적인 對북한 투자

진출의 계기로 고려될 수 있는 상황 변수는 ① 북일 수교 교섭의 성공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 해결, ②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 조치의 발전 방향, ③ 남북한간 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 리스크 감소로 근본적인 투자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고서는 대북 투자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경제 활동 참여라기 보다는 농업 협력 등 원조 지원형 진출 내지는 일부 제한 지역의 관광, 서비스업 진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건설, 통신 등의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외화 수입 증대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북한 경제 근본적 희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지난 9월 5일의 헌법 개정, 국방위원장 선출, 내각의 권한 강화 등 일련의 조치가 본격적인 김정일국방위원장시대를 준비하는 포석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진·선봉지대외의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법규 정비, 믿을 만한 산업 현황 자료 공개 등을 실행함으로써 특정 기업뿐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 대상지로서의 장점을 신속하고 꾸준히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㉔

8) 북한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최혜국 대우가 아닌 일반 관세율(상대적으로 고관세)을 부과하고 있어, 중국, 베트남 등 잠재적 경쟁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다. 미국의 경우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북한산 물품 반입 원칙적 금지, 유럽·일본의 경우에도 당해국의 원산지 규정과 GSP 수혜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